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86·'88중에서 '86 아시아 올림픽 경기가 지금 한창 서울에서 개최 중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경기장에 집중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중에도 수영의 최윤희선수와 24일 밤에 있었던 중공과대전에서 승리한 탁구 남자 단체전이야말로 관심의 핵이었고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충분하였다. 뼈와 살이 타는 밤이었다.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는 금메달의 화려함만 보게되고 금메달이 마치 우연히 어느날 갑자기 따게 되는 것 처럼 보이기 쉽다. 매일 매일의 연습이 쌓여져서 어느날 금메달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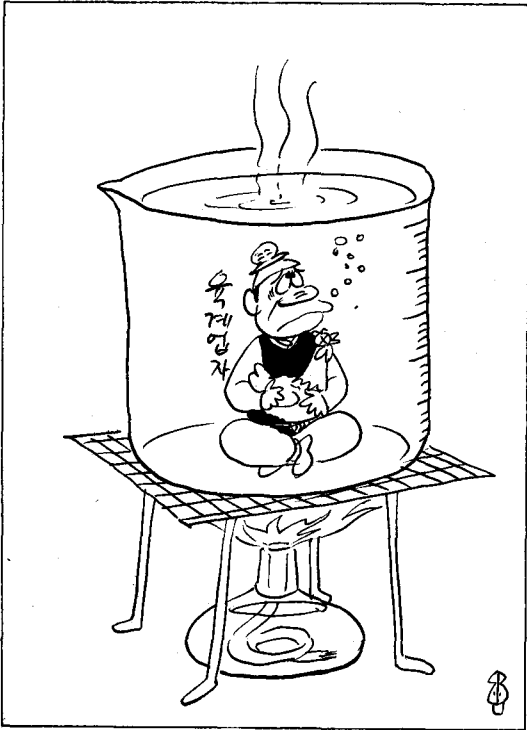
편하게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가 되면 닭고기의 소비가 지금의 2~3배가 될 것이고 생산 유통이 계열화 되어 브로일러 산업이 금메달의 영광을 안게 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이를 위해 조금씩 조금씩 벽돌을 쌓아가는 노력은 보여지지 않는다.

일부지방에서는 닭고기 값이 kg당 450원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병아리를 300원에 구입한 것이라니 사료값은 고사하고 도산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육계가격이 충격적으로 폭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빨리 단념하고 브로일러 산업에서 뛰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때문이다.

브로일러 산업이 선진 외국처럼 계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경영비선으로 가격이 유지되면 망하는 줄도 모르다가 망하게 된다.

큰 비이커에 시원한 물을 넣고 그안에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기분 좋게 헤엄을 치며 논다고 한다.

비이커 밑에 알콜 램프를 놓고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여가면 개구리는 따뜻해지는 물에서 더욱 기분 좋게 헤엄치다 결국은 익어 죽는다고 한다.

아예 한번에 온도를 올리면 뜨거워 비이커를 뛰어 나가지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분위기에 젖어버리고 결국은 익어 죽는다고 한다. 한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느날 갑자기 한 산업이 흥하거나 망할 수가 없다. 가밭이나 면화농사 등이 서서히 아주서서히 개구리처럼 되어 갔다.

개구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아주 적은 일부터 좋은 일은 실행에 옮기고 나쁜일은 단호히 끊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이 갑자

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꽃밭의 잡초가 갑자기 무성해 지는 것이 아니고 업계의 분열도 조금씩 조금씩 분열하는 것이며 금실 좋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 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며 진실한 농장이 하루 아침에 부도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브로일러 가격도 어느날 갑자기 kg당 450 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입식을 하여왔기 때문에 개구리처럼 된 것이다.

소비자 식단에 계란과 닭고기를

보사부는 지난해('85년)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섭취 실태를 전국 12개 시도에서 25개 지구 1천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은 소요량을 넘고 있어 단백질 식품의 소비홍보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 미국의 갤럽조사에서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성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게재 하였는데 앞으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한 조사 분석이 뒤따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이번 보사부 조사에서 흥미있는 것은 비타민C와 칼슘 철분 등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번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최근 병원에 비타민C 결핍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후 각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 제제의 홍보

가 TV나 일간지에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채식이(신선한 야채) 지나치게 강조되면 육류소비와 어떠한 균형을 이룰지도 궁금하다.

계란의 철분과 우유의 칼슘 등이 소비자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85년도 국민 영양섭취 현황중 중요 부

에너지 섭취량

구분	1인 1일 섭취량	곡류로 섭취하는 비율
지역별		
대 도시	1895칼로리	63.3%
중 소 도시	1914	68
농 촌	1987	71.8
평 균	1936	67.9
	(필요량의91.1%)	

영양소별 에너지 섭취 비율

영양소별	76년	85년
탄 수 화 물	78.1%	70.8%
단 백 질	12.4	15.5
지 방	9.5	13.7

1일 식품 섭취량

식품별	섭취량	85년 섭취량	전년대비
1인 1일 총 식품 섭 취 량		1,050 g	+5.9%
식 물 성 식 품 (곡류와 그제품)		867	+1.9%
동 물 성 식 품		384	-5%
대 도시		183	+30%
농 촌		233	(77년85.2g)
		128	



▲ 요리솜씨대회에 출품된 작품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는 장면

분을 발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는 지나치게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많아 앞으로 소비홍보는 농촌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비타민 B군의 경우 전국민의 25%가 필요량의 75%이하를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부족비율이 높고 비타민C의 경우에 대도시가 30%에 해당하는 인구가 결핍을 우려할 상태로 나타나 닭고기나 계란홍보에 대도시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와C의 공급원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는 것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고 계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 물론 젊은 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높아 가고 대도시에 소비계층이 늘어가고 있는 등 소비자의 식품소비 성향이 매년 급격하게 큰폭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선물용 상품도 개발해야

이번 추석에는 식품류의 선물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 그중에도 건강식품이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추석 특매기간인 9월9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판매량이 지난해의 거의 갑절이 되었다고 한다. L백화점의 경우에 지하 식품매장에서 이기간 동안 약 60억원의 매상고를 올렸고 이중 18%인 10억원이 건강식품류라고 한다.

도시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동안 콩나물에 농약비료, 두부하면 석회, 쇠고기하면 물먹인소 등으로 소비자의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고 별레먹은 배추를 구입한다는 보도까지 있을 정도가 되었다.

계란도 위생란 자연란 등의 상품이 등장하였고 닭고기도 산닭을 보고 사야 직성이 풀리는 것도 불신평조 때문이다.

양계업계에서도 닭고기를 추석선물셋트로 만든 것이 나왔고 본회에서라도 선물용계란으로 적합하도록 포장용기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지만 왠지 이용율이 그리 높지 못하다.

닭고기나 계란이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홍보가 잘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미년(辛未洋優1871) 강화도에서 미군에게 선전포고를 하려간 한국사신이 머나먼 풍랑속의 뱃길을 오느라 시장할 터이니 먹고나 싸우자고 소 3마리, 닭50마리, 달걀1만개를 주겠노라 하고 침략자 마저도 닭고기와 계란으로 대접한 기록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페어 플레이를 잘알



수 있다. 이렇게 하고도 미군을 격퇴하였으니 말이다.

닭고기나 계란으로 손님을 대접하면 귀한 대접이 되도록 손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닭고기가 지방이 적은 핵산식품인 것과 계란의 영양가치와 정력제로써의 효능을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양계농가들이 기대했던 아시아 올림픽이 일찍 퇴근해서 TV앞에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포장마차들이 이기간동안 영업을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소비가 되지않아 닭값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소주는 반대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TV를 보며 소주 안주로 닭고기를 곁들였으면 하는데 잘안되고 있다.

이번 86대회에 외국선수들에게도 신미년 강화유수가 한것 처럼 닭고기와 계란을 위주로 식단을 짜서 대접하는 것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중동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회교권 국가들이 돼지고기를 인도가 쇠고기를 기피하니 양계산물이야말로 만국인의 식품이 아닐 수 없다.

재산세, 각학교 등록금이 겹치고 아시아 올림픽행사까지 겹쳐 육계업자의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